

▶ 다음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Q. 금주 나의 조건은 몇 도였나요? 1~10도까지 표현해보고 왜 그러한지 가볍게 나눠보세요.

▶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찬 550장) /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보소서 주님

▶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 모임기도 (셀리더 또는 맡은 사람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 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 표준새번역)

▶ 금주 말씀 되새기기 / “시내산에 머물 것인가? 시온산에 오를 것인가?”

1. 두 개의 산 이야기

히브리서 12:18-29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이라는 두 개의 산을 대비하며 설명합니다. 시내산은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산이었습니다. 반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두 산을 비교합니다.

2.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퇴행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과 제사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겪는 어려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전통, 구약의 제사에 대한 미련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을 선택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3.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

사람은 이성적 존재 같지만, 사실 감정과 본능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도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것도 익숙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4.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익숙한 전통과 율법이 주는 안정감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신앙이 주는 변화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익숙한 방식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을 향해야 하며, 과거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 아래의 질문으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세요!

1. 나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드리나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나요, 신중하게 고민하나요? 최근에 새롭 것을 받아드린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배운 점을 나눠봅니다.
2. 히브리서 12장 18-29절을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과 제사의 종교로 돌아가려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내 신앙의 모습에서 후퇴의 모습과 성장의 모습 한 가지씩 나눠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을 말해보세요.
3.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안정'은 무엇이고, '새로움'은 무엇인가요? 왜 그러한지도 함께 나누면서 그 감정이 내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나눠봅시다.

▶ 나누었던 내용과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산을 향한 믿음의 여정

- 우리의 신앙이 시내산의 두려움이 아니라, 시온산의 은혜와 기쁨을 향해 나아가도록
-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신앙의 퇴보가 아닌 성장

- 익숙한 과거의 신앙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 율법과 형식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깊은 신앙을 이루도록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린 마음

- 변화와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따르도록
- 교회 공동체가 전통과 새로움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 지금은 '셀 헌금' 시간입니다.

-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셀 리더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